

# 오드펠, 울산 탱크터미널 대폭확장

2012년까지 487억원 추가투자 ... 덴 오드펠 회장 11월1일 울산 방문

전세계 16개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운송기업인 노르웨이 오드펠(Odfjell)의 덴 오드펠(Dan Odfjell) 회장 일행이 11월1일 울산시를 방문한다.

오드펠 회장은 박맹우 울산시장을 내방하고 앞으로 증설투자 등에 대해 울산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그동안의 협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드펠은 2002년 11월27일 대한유화 등 국내 4개 기업과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온산국가산업단지 소재 대한유화 부지 4만7000여평에 5150만달러(약 620억원)를 투자해 오드펠터미널코리아를 설립했다.

오드펠터미널코리아는 11만kl 용량의 탱크 39기를 건설해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해 73만3500톤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487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오드펠이 2012년까지 계속 증설해 나감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관련업계의 산업구조 선진화는 물론 울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로서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31>